

지카라모치

지카라모치는 이 지역 전설에 바탕을 둔 지역 과자입니다. 얇게 편 찹쌀 반죽으로 달콤하게 맛을 낸 팔소를 감싼 다음, 쌀가루로 만든 가볍고 바삭한 센베이 사이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. 이 과자는 유라초에서 1887년부터 영업해 온 가족 경영 과자점이 1955년에 고안한 것입니다. 센베이의 고소함, 찹쌀떡의 부드러움, 앙금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풍미 좋은 명과입니다.

과자 포장지에는 민화에 나오는 새처럼 생긴 요괴 ‘덴구’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. 전설에 따르면 현지의 고코쿠지 절이 전소되었을 때 근처 산에서 떠돌이 승려가 찾아와 도움을 주었는데, 절의 승려와 마을 사람들이 귀가해 새벽까지 집에 머물겠다고 맹세하면 절을 재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.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보니 절은 재건되어 있었지만, 떠돌이 승려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이 위엄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‘덴구’가 한 일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과자는 덴구가 좋아하는 찹쌀떡을 주요 재료로 사용해 이 전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